

# 소설의 시대 31년, 그 백 번째 물음

— 데이터로 읽는 『현대소설연구』 1~99호

최주찬\* · 김병준\*\* · 김경민\*\*\* · 허예슬\*\*\*\*

## 요약

이 글은 『현대소설연구』 창간(1994) 이후 2025년 현재까지 31년간(1~99호) 발표된 총 1,48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제목과 부제, 참고문헌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제하여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이 글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대소설연구』가 구축해 온 지식 구조와 그 변동 양상을 거시적·미시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Python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명사 빈도 분석, TF-IDF, 시계열 기반 참고문헌(번역서·원서) 계량 분석의 방법론을 동원하였으며, 이를 위해 1994~2025년 간 논문 서지정보 및 참고문헌 데이터를 KCI 활용 및 휴먼 라벨링으로 통합 구축하였고, 국가서지 LOD를 활용하여 참고문헌 저자명을 전거화하였다.

논문 제목과 키워드 분석에서 『현대소설연구』는 시기별로 뚜렷한 문제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1990년대에는 문학사적 기초 개념을 정립하는 데 주력했으며, 2000년대에는 ‘근대성·여성·공간’ 등의 이론 어휘가 두드러지며 연구의 이론적 확장이 본격화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여성·주체·해방·전쟁·욕망’ 등이 중심적 화두로 부상하여 지형의 전환을 보여준다. 2020년대 이후에는 젠더 연구의 심화와 더불어 새로운 감각적·세대적 세계 인식이 두드러져, 기존 연구 경향과의 변별적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한편 제목에 출현한 작가 분석을 통해 『현대소설연구』가 특정 시기에 어떤 작기를 중심축으로 문학사를 재구성해 왔는지 확인하였다.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공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 공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식민지 시기 작가(이태준·황순원·채만식 등)가 초기 연구를 주도했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박완서 등 동시대 여성 작가 연구가 대폭 확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용된 번역서·원서 분석을 통해 한국 현대소설 연구가 어떤 외부 지식 체계와 접속하며 발전해 왔는지를 밝혔다. 1990-2000년대에는 서사학·문예학 중심 이론(바흐찐·주네트·케넌·채트먼)이 압도적으로 인용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프로이트를 포함한 정신분석학, 장소·공간 연구(이푸 투안·에드워드 렐프)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버틀러·보부아르 등 페미니즘 이론가의 피인용량이 상위권에 등장하며 학술장의 지적 지형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현대소설연구』, 디지털인문학, 계량적 분석, 논문 제목, 참고문헌 분석

## 목차

1. 들어가며: 백 번째 질문을 앞에 두고
2. 데이터 분석 방법론
3. 연구자의 물음, 제목과 키워드로 본 『현대소설연구』
4. 연구자의 서재, 참고문헌(번역서·외서)으로 본 『현대소설연구』
5. 결론을 대신하여

### 1. 들어가며: 백 번째 질문을 앞에 두고

1994년 12월, 한국현대소설학회가 첫 논문집을 내고 31년이 지났다. 99호의 논문집, 1,487편의 논문, 약 4,523건의 참고문헌(번역서, 외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글은 『현대소설연구』 100호를 맞아 1호부터 99호 까지의 연구 동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지난 31년 간의 한국 현대소설 연구사에 대해 때로는 거시적으로 때로는 미시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소설의 시대”<sup>1)</sup>라는 선언, 그로부터 점화된 『현대소설연구』의 지난 궤적들은 무엇의 해명이었으며 어떠한 지대였는가. 이것이 31년의 도저한 아

1) 구인환, 「별간사」, 『현대소설연구』 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4.

카이브를 앞에 둔 우리의 물음이다.

시대는 지나가고, 추억은 거듭된다. 다만 기입의 문법은 달라지곤 했다. 이른바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로 대변되는 정량적 방법론은 기왕의 연구사 및 학술사를 새롭게 조망 및 평가하는 일에 빈번히 활용되어 왔다. 2012년 제출된 황호덕의 논문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상허학보』에 발표된 395편의 논문과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민족문학사연구』에 발표된 근현대문학 관련 논문 450편을 계량적으로 통관한 것이다.<sup>2)</sup> 1990년대에 산출된 한국 근현대소설 박사학위 논문의 특징과 동향을 기초적 통계를 통해 파악한 노상래<sup>3)</sup>의 시론적 작업 이후, 프랑코 모레티<sup>4)</sup>의 세계문학사 도식화 실험을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장으로 “토착화”<sup>5)</sup>한 첫 번째 기획이었다.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외국 문학 이론 수용 및 도입의 양상을 조망한 이 논문은 분석 대상 논문들의 초록, 키워드, 참고문헌 등을 데이터화한 뒤 연도 및 호수별 논문수, 외래 문헌의 인용수와 피인용 저자·저서의 ‘국적’, 키워드 및 유사 어휘들을 정리하여 범주화한 키워드군(群) 등을 통계화했다. 외래 문헌의 인용과 키워드 분석의 연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서술이 유보되긴 했으나, 기초적 단계에서의 어휘 빈도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계량적 방법론을 문학사, 특히 학술사 연구에 적용했다는 점에

2) 황호덕,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와 이론, 예비적 고찰 혹은 그래프·지도·수형도」,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53-115면.

3) 노상래, 「1990년대 현대소설 연구 동향과 전망」, 『현대소설연구』 1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363-382면.

4) 프랑코 모레티, 이재연 옮김, 『그래프, 지도, 나무』, 문학동네, 2020.

5) 예컨대 황호덕은 국문학 연구의 외국 이론 수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 어느 학문 분야보다 한국이라는 장소에 단단히 주박되어 있는 국문학 연구, 그 어떤 실천보다 ‘지금 여기’라는 고유한 시간, 고유한 장소에 긴박되어 있는 현대문학연구 및 문학비평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외국 이론을 지금 여기에 장소화하는 한편, 특정한 장소 안에서 추상된 이론을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비장소화 혹은 토착화하는 독특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황호덕, 앞의 논문, 54-55면.

서 선구적이다. 또한 한국 현대문학 연구가 외부의 ‘앎’을 소화하는 일의 구조와 의미를 궁구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주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김병준·천정환(2020)의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현대문학 분야 박사학위 논문의 서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20년 간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경향의 변동을 추적한 것이다.<sup>6)</sup>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을 적용·실행”<sup>7)</sup> 함을 천명한 서두와 같이 이 논문은 본격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렌즈들로 근자의 학술사를 조망한다. 분석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수집한 논문들의 제목과 목차에서 명사만을 추출하여 단순 빈도수 및 역문서 빈도(TF-IDF)를 계산, 상위 30개 단어를 뽑아낸 뒤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더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 인문학의 문법들을 전격 구사하여 학술사를 서술했으며, 디지털 인문학의 각종 도구들이 현대문학 연구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sup>8)</sup>

이 글은 『현대소설연구』의 지난 31년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학술지 연구인 바, 『상허학보』 30년의 흐름을 수량적으로 파악한 이재연·한남기의 논문(2022)은 직접적인 참조점이 된다.<sup>9)</sup> 이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

6) 김병준·천정환, 「박사학위 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443~517면.

7) 김병준·천정환, 앞의 논문, 447면.

8) 이후 연구자 및 학술사를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론, 곧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 되기에 이른다. 주요 저술은 다음과 같다. 김지아·김재원·유시어도어준, 「문학 및 작가 연구와 DB의 활용- 김수영 DB ‘별길’의 데이터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24,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최진석·김병준·허예슬·최주찬·황호덕, 「김윤식과 우리 시대, 인용의 인구사회학적 시좌- 현대문학연구자의 성별 및 세대별 김윤식 저술 인용 양상 연구(2004-2019)」, 『국제어문』 96, 국제어문학회, 2023; 허예슬·김병준·최주찬·최진석, 「푸코의 초상: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의 푸코 인용 양상 변화: 2008-2021 KCI 등재 학술지 논문 참고문 헌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46, 한국이론사회학회, 2023; 유석환, 「한국문학 및 독서문화사 연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상허학보』 69, 상허학회, 2023; 김지윤, 「2000년 이후 이광수 연구의 흐름에 대한 계량적 분석」, 『춘원연구학보』 29, 춘원연구학회, 2024.

행되었다. 먼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허학보』 발표 논문들의 제목을 수합하여 일정한 가공을 가한 후 어휘 빈출 빈도의 기초적 비교를 거친 다음, 제목에 주제어를 추가하여 빈출 빈도와 상대빈도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논문 단위에서 동시출현한 어휘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재구성한 뒤 군집 분석을 통해 특징적인 군집의 주요한 어휘를 파악한다. 이 논문은 최종적으로 『상허학보』의 분기별 핵심 어휘들을 도출해내고 있다.

이 논문은 논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바, 본론의 기술이 단순 분석에만 그치는 경향이 강한 점이 아쉽다. 서술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 상당부분 할애되어 있어 그에 대한 해석이 다소 부족하다. 결론에서 어느정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테면 2기(2003-2012년)의 핵심 어휘인 ‘근대’, ‘주체’, ‘문화’가 3기(2013-2022년)에 이르러 ‘냉전’, ‘북한’, ‘여성’으로 이행하는 경로 및 경위에 대한 해석이 긴요해보인다. 그럼에도 이 논문은 산발적으로 분포된 개념어 및 키워드를 종합하여 특정 학술지, 나아가 한학회의 지향과 그 변동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면에 제시된 공기어(共起語) 네트워크 그래프는 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중심성 분류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도출된 결과값 역시 분석 시기를 공유하고 있는 본 논문에 중요한 비교군을 제시해준 셈이다.

여러 논문들에서 시도했던 방식을 참고 삼으며, 이 글을 통해 우리는 31년간 제출되었던 논문의 제목과 부제, 초록과 키워드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한국 현대소설 연구가 어떤 변화를 거치며 구축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무엇’을 연구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한국 현대소설이 ‘어떻게’ 즉 어떠한 이론과 방법들을 받침 대 삼아 공부, 연구되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31년 간 제출된 논

9) 이제연 · 한남기, 「논문 제목과 주제어의 공기어 네트워크로 본 『상허학보』의 30년」,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11~56면.

문들의 ‘참고문헌’ 중 번역서와 외서들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소설이 어떤 ‘외부로부터의 역학’에 의해 자기 모양을 만들어 나갔는지 살펴볼 것이다.

## 2. 데이터 분석 방법론<sup>10)</sup>

### 데이터 수집 및 선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기준에 확보하고 있었던 ‘2008-2021년 한국 현대문학 학술지 논문 서지 정보 데이터’와 ‘해당 논문들의 참고문헌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되, 이를 연구 목적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sup>11)</sup> 가장 먼저 기 구축된 데이터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학술지인 『현대소설연구』의 서지 정보 데이터와 그 참고문헌 정보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별도의 시트로 구축했다. 다음으로 2022-2025년 『현대소설연구』 서지 정보 데이터 (참고문헌 데이터의 경우 2022-2024년)를 KCI에서 제공하는 API와 파일 요청을 통해 추가로 수집했다. 단 1994-2007년에 발행된 『현대소설연구』 제1호-제36호의 서지 정보 데이터와 해당 논문들의 참고문헌 정보 데이터는 KCI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 이전의 데이터였기에 연구자들이 DBpia에서 본문을 열람하여 직접 입력하였다.<sup>12)</sup> 참고문헌 정보 데이터의 경우, 연구 목적에 맞게 번역서, 원서 정보만 입력하였다. 나아가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각 논문에 부여된 고유한 ID가 필요한데, KCI 시스템 구축 이전 데이터에는 각 논문에 고유하게 부

---

10) 이 연구에 쓰인 데이터와 Python 코드는 아래 깃허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ByungjunKim/JKFR-100th-Question>

11) 해당 데이터, Python 코드 등은 아래 깃허브(GitHub)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ByungjunKim/FoucaultKoreanLiterature>

12) 특히 참고문헌 데이터는 2008년 이후가 되어야 비교적 정확히 반영되었다.

여된 ID가 없었으므로 연구자들이 설정한 임의의 규칙을 기반으로 부여하였다. 「발간사 (현대소설연구 1994년 창간호)」 (구인환, 1994)를 예로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임의의 artID	현대(H)소설(S)연구(Y)	발행연월	학술지에 실린 순서
HSY19941201	HSY	1994년 12월	01번

최종적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호부터 제99호까지, 1994-2025년까지 31년 간 게재된 1,487편의 논문(창간호 발간사 포함) 서지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후 해당 논문들에 대한 참고문헌 정보 데이터의 경우 제1호-제36호(1994-2007년)는 번역서, 원서의 직접 입력을 통해, 제37호-제96호(2008-2024)는 요청한 데이터 중 type name이 ‘단행본’ (type-code 3)인 경우를 필터링하여 진행하였다. 제1호-제36호에 게재된 논문의 참고문헌 데이터가 번역서, 원서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하여, ‘번역서(원서)’로 일괄 라벨링하고 제37호-제96호 데이터를 합본하여 제1호-제36호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번역서 및 원서/비번역서로 자동 분류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의 추가 검수를 통해 오분류된 데이터를 바로 잡아 『현대소설연구』 제1호-제96호의 번역서, 원서의 참고문헌 정보 데이터’를 최종 구축하였다.<sup>13)</sup>

## 데이터 정제 과정

이론가들의 인용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자명 통일 및 식별화 작업이 필요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국가서지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 중 개인명 데이터셋 json 형식의 파일을 활용하였다.<sup>14)</sup> 해당 파일은 네 개의 파일에 총 1,802,888 건이라는 방대한 양을 자

13) 본 연구의 참고문헌 분석의 경우, KCI 참고문헌 구축이 완료되어 요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제96호(2024년 12월 발간)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14) <https://lod.nl.go.kr/home/dataset/datasetdownload.do#data-authority>

랑하며,<sup>15)</sup> key-value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2843  {
2844    "id": "nlk:KAC199601442",
2845    "type": "bcl:Author",
2846    "associatedLanguage": "한국어",
2847    "birthYear": "1938",http://www.w3.org/2001/XMLSchema#int,
2848    "corporateName": "한전사고학 교육학 연구소 (서울)",
2849    "create": "2016-03-02T00:00:00Z",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2850    "deathtime": "1975",http://www.w3.org/2001/XMLSchema#date,
2851    "fieldOfActivity": "미술(회화·조각·도예)",http://www.w3.org/2001/XMLSchema#string,
2852    "isni": "0000000121242412",
2853    "label": "미술가, 미술학자(미술)(한국)",http://rdfs.org/r/, "일본 미술, (김), 2006",
2854    "modified": "2023-01-26T15:53:39",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2855    "birthPlace": "한국(한국)",
2856    "gender": "남성",
2857    "jobTitle": ["총론가(교양)", "필자(문장)", "선언작자", "별필자(필명)", ],
2858    "rdf:type": "http://xmlns.com/foaf/0.1/Person",
2859    "label": "Bakhtin, Mikhail Mikhailovich",
2860    "sameAs": "http://id.ncl.go.jp/auth/entity/00322139", "http://data.cnf.fr/nlk/12148/fab1888894#saf:Person", "http://libris.kb.se/resource/sorb/220763", "

```

〈그림 1〉 개인명 데이터셋 예시-미하일 바흐친

본 연구는 이중 필요한 key-value만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네 개의 파일을 하나로 통합, 새롭게 정제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sup>16)</sup>

```

2843  {
2844    "id": "nlk:KAC199601442",
2845    "isni": "0000000121029425",
2846    "label": "Bakhtin, Mikhail Mikhailovich",
2847    "altLabel": [
2848      "Bахтин,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2849      "바흐진, 미",
2850      "Bakhtin, Mikhail",
2851      "바흐친, 미하일",
2852      "바흐친, 미하일",
2853      "바흐친, M.",
2854      "Bachtin, Michail M.",
2855      "파혁김, 미",
2856      "박호진,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2857      "파프친, 미하일",
2858      "파프친, 미하일",
2859      "박赫金, 米@zh"
2860    ],
2861    "prefLabel": "Bakhtin, Mikhail Mikhailovich",
2862    "name": "Bakhtin, Mikhail Mikhailovich"
  },

```

〈그림 2〉 개인명 데이터셋 정제 예시-미하일 바흐친

15) 데이터 생성일 : 2025-10-08

16) 포함된 key-value는 다음과 같으며, 추출한 key의 경우 강조하였다.

id, type, associatedLanguage, birthYear, corporateName, create, deathtime, fieldOfActivity, isni, source, modified, birthPlace, gender, jobTitle, rdf:type, label, sameAs, altLabel, prefLabel, name

해당 데이터셋에서 저자명이 일치하는 경우, “id”(KAC제어번호)를 입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레코드를 비교, 동일한 객체일 가능성을 계산해주는 퍼지 매칭 기술(Fuzzy matching algorithms)을 활용했다(기준 점수 85점). 이를 통해 입력은 최대한 자동화하고 연구자들이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LOD데이터에 저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약 400여 건)을 제외하고, 90%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 저자 전거 정보를 KAC 제어번호를 통해 통일할 수 있었다.

### 3. 연구자의 물음, 제목과 키워드로 본 『현대소설연구』

우리는 1994~2007년까지 『현대소설연구』의 제목(및 부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07~2025년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31년간 총 1,487건의 논문 제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제목들과 초록 및 키워드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현대소설연구』의 필진들이 1,487편의 논문을 통해 무엇에 대해 묻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차례로 제목과 초록, 키워드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들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소설연구』가 어떤 물음을 가지고 한국 현대소설을 읽었는지 살핀다.<sup>17)</sup> 그리고 여타 학술지 및 국문학 학술장의 경향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현대소설연구』가 놓인 자리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본다. 또한 제목에 자주 등장한 작가들의 양상을 통해 어떤 작가들이

---

17) 데이터 부재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는 제목만을 분석하였고, 2004년부터는 KCI에 초록/키워드가 포함되기 시작했기에 제목, 한국어 초록, 한국어 키워드를 통합해서 명사를 추출하였다. 명사 추출은 kiwi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였다.

연구되었는지 파악해본다.

### 제목, 초록 및 키워드 고빈도 어휘 분석<sup>18)</sup>

〈표 1〉 시기별 상위 명사 토큰 빈도

순위	1994-2003	2004-2013	2014-2023	2024-2025
1	현대 (33)	작품 (853)	작가 (772)	여성 (113)
2	한국 (32)	근대 (684)	작품 (717)	서사 (101)
3	양상 (27)	서사 (602)	여성 (670)	작가 (77)
4	고찰 (24)	작가 (596)	서사 (642)	주체 (73)
5	서사 (21)	여성 (518)	인물 (500)	작품 (68)
6	근대 (19)	인물 (510)	사회 (494)	근대 (66)
7	의미 (18)	현실 (499)	의미 (465)	사회 (55)
8	담론 (18)	의미 (476)	현실 (465)	한국 (50)
9	구조 (13)	사회 (441)	주체 (464)	과정 (48)
10	초기 (13)	의식 (405)	한국 (447)	전후 (46)
11	현실 (13)	공간 (403)	공간 (419)	의미 (45)
12	문제 (12)	한국 (394)	과정 (409)	글 (42)
13	여성 (12)	과정 (383)	근대 (401)	역사 (41)
14	이태준 (11)	주체 (382)	문제 (395)	분석 (40)
15	공간 (11)	문제 (349)	의식 (326)	현실 (40)
16	의식 (11)	삶 (342)	삶 (320)	인식 (38)
17	작품 (10)	역사 (333)	자신 (286)	관계 (37)
18	황순원 (10)	인식 (307)	세계 (282)	세계 (37)
19	방법 (10)	민족 (283)	인식 (279)	죽음 (36)
20	성 (10)	욕망 (278)	존재 (276)	인물 (36)

18) 해당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설정한 불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속」, 「점」, 「것」, 「수」, 「등」, 「때」, 「종」, 「후」, 「바」, 「이」, 「그」, 「저」, 「년」, 「대」, 「본고」, 「논문」, 「연구」, 「소설」, 「문학」, 「중심」

〈표 2〉 TF-IDF

순위	1994-2003	2004-2013	2014-2023	2024-2025
1	현대 (0.031)	근대 (0.031)	여성 (0.0357)	여성 (0.0452)
2	한국 (0.0276)	여성 (0.0294)	작가 (0.0272)	서사 (0.0342)
3	양상 (0.0229)	작품 (0.0277)	서사 (0.0253)	근대 (0.0307)
4	고찰 (0.0222)	서사 (0.0263)	작품 (0.0247)	주체 (0.0289)
5	서사 (0.0212)	인물 (0.0232)	공간 (0.0224)	작가 (0.0278)
6	담론 (0.0198)	작가 (0.0232)	주체 (0.0215)	작품 (0.0232)
7	의미 (0.0195)	공간 (0.0222)	인물 (0.0214)	전후 (0.0231)
8	근대 (0.0184)	현실 (0.0213)	사회 (0.0201)	죽음 (0.0211)
9	초기 (0.0183)	한국 (0.02)	근대 (0.02)	사회 (0.0211)
10	이태준 (0.016)	사회 (0.0195)	한국 (0.0193)	역사 (0.0209)
11	구조 (0.0148)	주체 (0.0193)	현실 (0.0189)	세대 (0.0206)
12	공간 (0.0143)	의식 (0.0186)	의미 (0.0169)	사랑 (0.019)
13	독자 (0.0138)	의미 (0.0177)	해방 (0.0166)	세계 (0.0189)
14	여성 (0.0135)	역사 (0.0172)	문제 (0.0161)	민족 (0.0186)
15	현실 (0.0129)	담론 (0.0164)	과정 (0.0157)	도시 (0.0185)
16	의식 (0.0124)	민족 (0.0163)	전쟁 (0.0154)	연애 (0.0181)
17	특성 (0.0123)	욕망 (0.016)	의식 (0.0149)	공간 (0.0181)
18	황순원 (0.0119)	과정 (0.0155)	민족 (0.0149)	한국 (0.018)
19	문제 (0.0118)	문제 (0.0151)	욕망 (0.0147)	바다 (0.0177)
20	방법 (0.0116)	독자 (0.0148)	독자 (0.0144)	의미 (0.0176)

『현대소설연구』(1994~2025)의 논문 제목에서 나타나는 명사 사용 양상을 단순 명사 출현 빈도와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지표로 비교하였다. 단순 명사 출현 빈도는 텍스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개념을 중심으로 해당 시기의 주요 연구 대상과 연구량을 보여주는 반면, TF-IDF는 상대적으로 특정 시기에 고유하게 나타난 개념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시기의 차별적 문제의식을 드러낸다.<sup>19)</sup>

여기서는 『현대소설연구』의 31년 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핀다. 먼저 1994~2003년의 초기 시기의 단순 빈도는 ‘현대’, ‘한국’, ‘양상’, ‘고찰’,

19) 두 지표의 비교는 단일 분석보다 훨씬 정교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단순 빈도가 특정 단어의 ‘자주 등장함’을 보여준다면, TF-IDF는 같은 단어가 특정 시기에서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를 고려하여 ‘왜 그 시기에서 중요했는가’를 설명한다.

‘서사’, ‘근대’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TF-IDF 역시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데, 이는 이 시기에 연구 대상·방법론·문제의식의 스펙트럼이 비교적 동질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현대’와 ‘한국’이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는 점은 학계가 이 시점에서 ‘한국 현대문학’이라는 범주의 기초를 설정하는 데 집중했음을 나타낸다. 당시 연구자들은 한국 현대문학의 시기 구분, 근대 문학과의 단절 또는 연속성을 구명하는 작업 등 문학사적 기초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양상’, ‘고찰’, ‘의미’, ‘담론’, ‘구조’ 등 메타적 개념이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점은 연구자들이 특정 작품 분석보다는 개념의 정의, 문학사적 위치의 규명, 비평적 방법론의 확립에 무게를 두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창간 초기의 학술지가 종종 수행하는 ‘기초 학문적 지평 구성 작업’과 맞물린다.

특정 작가명(이태준, 황순원)이 TF-IDF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당시 연구가 대표 작가를 중심으로 문학사 서술을 구성하는 전통적 방식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명조차 TF-IDF 값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연구는 특정 주제의 돌출적 관심이 아니라 공통된 개념 기반 위에서 전체적으로 균질한 연구 지형을 보여준다.

두 번째 시기(2004~2013년)는 단순 빈도와 TF-IDF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단순 명사 빈도에서는 ‘작품(853)’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근대’, ‘서사’, ‘작가’, ‘여성’, ‘인물’, ‘사회’, ‘현실’ 등이 뒤를 잇는다. 이는 연구자들이 개별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량을 급격히 확대했던 시기임을 보여준다. 특히 작품 수치가 전 시기 대비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은, 『현대소설연구』가 글자 그대로 ‘현대소설’ 자체로 연구 관심을 집중시키는 실천적 장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TF-IDF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제시한다. TF-IDF에서는 ‘근대(0.031)’, ‘여성(0.0294)’이 최상위에 위치하며, ‘공간’, ‘현실’, ‘욕망’, ‘의식’, ‘한국’, ‘사회’ 등이 높은 가중치를 가진다. 이는 해당 시기의 연구가 단지

작품 분석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근대성의 재해석, 젠더 및 여성 주체 연구의 본격화, 공간 이론(도시 공간, 생활 세계, 장소성 등)의 도입, 정신·욕망·의식 구조 분석에 기반한 이론적 확장, 사회적 현실 재검토와 같은 이론적 다성화를 추동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단순 빈도는 ‘연구량의 확대’를, TF-IDF는 ‘문제의식의 심화’를 보여준다. 이 차이는 『현대소설연구』가 이 시기에 단순한 작품 해석을 넘어 근대성, 젠더, 주체, 공간성 등 새로운 비평 이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연구의 충위를 확장했음을 입증한다.

세 번째 시기(2014~2023)에는 단순 빈도와 TF-IDF 모두에서 젠더·주체성 중심 비평의 전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단순 빈도에서는 ‘작가(772)’, ‘작품(717)’, ‘여성(670)’, ‘서사(642)’가 핵심을 이루는데, 이는 이 시기에도 텍스트 분석 중심의 연구 구조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TF-IDF는 ‘[여성(0.0357)] → [작가] → [서사] → [공간] → [주체] → [사회] → [해방] → [전쟁] → [욕망]’이라는 어휘적 흐름을 보여주며, 이는 해당 시기 연구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 단서가 된다. 특히 ‘주체’, ‘해방’, ‘전쟁’, ‘욕망’ 등의 가중치가 높아졌다는 점은, 여성 주체의 재현, 식민·전후·해방 수난사의 재해석, 전쟁 경험의 서사적 재구성, 욕망·정동·정신 구조에 대한 해석적 관심 등의 연구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세 번째 시기(2014~2023년)는 사회 전체 및 국문학계의 ‘페미니즘 리부트’와도 그 시기를 같이 한다. 여성, 섹슈얼리티, 젠더 등의 주제가 보다 전면적으로 연구된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앞 시기(2004~2013년)에도 역시 ‘여성’이라는 키워드는 매우 상위권에 위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적어도 현대소설 연구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관점이란 단순히 ‘리부트’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1990~2000년대부터 현대소설 연구라는 학술장은 페미니즘

20) 심진경, 「여성문학의 탄생, 그 원초적 장면」, 오혜진 엮음,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이라는 토대를 차곡차곡 축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sup>21)</sup>

또한 ‘공간’이 다시 TF-IDF 상위에 등장한다는 점은 2010년대 이후 현대 도시의 공간 경험, 장소성, 이동성, 감각의 문제가 문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 현대문학 연구가 텍스트의 내적 구조 분석을 넘어서, 사회문화적·철학적·정치적 차원에서 확장된 주체성 탐구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장 최근 시기(2024~2025년)에서는 ‘여성’, ‘서사’, ‘작가’, ‘주체’ 등이 단순 빈도와 TF-IDF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며, 젠더·주체 중심의 연구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TF-IDF 결과는 이 시기의 새로운 징후를 드러내는데, 특히 ‘세대(0.0206)’, ‘사랑(0.019)’, ‘연애(0.0181)’, ‘도시(0.0185)’, ‘세계(0.0189)’, ‘바다(0.0177)’ 등이 상위권에 위치한다. 이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기존의 젠더·주체성 논의 위에 세대적 경험의 문학적 재현, 정동(affect)과 감정의 사회성, 도시 경험의 서사 구조, 세계 인식의 변화, 감각적 이미지(바다 등)의 의미화와 같은 새로운 해석 지평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2020년대 중반의 연구는 앞선 경향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세대·도시성 연구를 결합한 새로운 문학 연구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제목 빈출 작가 분석

또한 논문 제목과 부제에 가장 많이 출현한 작가들은 누구일까. 20년간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김수영, 이상, 김춘수, 이청준, 최인훈 순이었다.<sup>22)</sup> 『상허학보』와 『민족문학사연구』의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자들의 작가는 박태원, 이태준, 김남천과 같은 작가들이었

---

21) 『상허학보』의 30년 간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주제는 시기를 불문하고 늘 화두였다는 사실 역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가 되겠다. (이재연·한남기, 앞의 논문, 29면. 참조)

22) 김병준·천정환, 앞의 논문, 469면.

다.<sup>23)</sup> 『상하학보』의 30년 전체로는 이태준, 박태원, 이광수, 김수영, 최인훈 순이었음을 확인했다.<sup>24)</sup>

그렇다면 대부분 한국 현대소설에 대한 연구 논문만을 수록하는 『현대 소설연구』의 경우는 어떠할까.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피면 아래와 같다.

〈표 3〉 1990년대

작가명	언급 횟수
이태준	7회
황순원	6회
이상	5회
이청준	5회
채만식	4회
손창섭	4회
김동리	3회
이문열	3회
한설야	2회
박경리	2회
오정희	2회
김승옥	2회
나도향	1회
복거일	1회
현진건	1회

〈표 4〉 2000년대

작가명	언급 횟수
이태준	13회
최인훈	13회
이청준	12회
염상섭	11회
이상	11회
김유정	8회
김동인	8회
김승옥	8회
오정희	7회
이효석	7회
이광수	7회
손창섭	6회
박경리	6회
채만식	5회
이문열	5회

23) 황호덕, 앞의 논문, 96~97면.

24) 이재연 · 한남기, 앞의 논문, 26면.

〈표 5〉 2010년대

작가명	언급 횟수
이청준	18회
이광수	16회
염상섭	13회
이태준	13회
황순원	13회
김유정	11회
최인훈	10회
김승옥	10회
오정희	9회
박경리	9회
채만식	7회
박태원	7회
손창섭	6회
박완서	6회
최인호	6회

〈표 6〉 2020년대

작가명	언급 횟수
박완서	12회
염상섭	10회
한강	6회
박경리	6회
이청준	6회
김사량	5회
손창섭	4회
이상	4회
최인훈	4회
최인호	3회
김승옥	3회
오정희	3회
이광수	3회
김유정	3회
김초엽	3회

1994년부터 1999년까지 1990년대의 최다 인용 작가 상위 다섯 명은 이태준(7회), 황순원(6회), 이상(5회), 이청준(5회), 채만식(4회) 순이었다. 이태준에 대한 관심은 각별한데, 이는 특히 해금 이후 월북 문인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sup>25)</sup>

그러나 1994년부터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현대소설연구』는 프로문학이나 카프에 대한 연구열이 한김 식혀진 이후(1980년대 중후반) 등장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sup>26)</sup> 그렇기에 해금 작가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띈다기보다는 오히려 황순원, 이상, 이청준과 같은 전통적인 대형 작가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태준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25) 노상래, 「1990년대 현대소설 연구 동향과 전망」, 『현대소설연구』 1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370면.

26) 손유경, 「최근 프로문학 연구의 전개 양상과 그 전망」,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279~308면.

는 해금 작가 중에서도 매우 이른 시기에 전집이 출판되어 보급되었다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sup>27)</sup> 특이한 점은 염상섭, 이광수 등 식민지기 민족주의, 리얼리즘 작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문학사의 개신, 정전의 재발견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sup>28)</sup>

2010년대 이청준에 대한 관심은 이청준 전집의 발간 및 작가 이청준의 사망(2008)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 이광수<sup>29)</sup>와 염상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는데 이는 식민지기에 대한 역사주의적 연구 경향의 한 단서라 볼 수 있다.<sup>30)</sup>

2020년대에 돋보이는 점은 단연 박완서의 등장이라 할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작가 박완서의 사망(2011)과 폐미니즘 리부트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박완서 연구열은 『현대소설연구』만의 것이 아니라 국문학 학술장 전체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sup>31)</sup> 그러나 『현대소설연구』 여성 작가 전체를 보자면, 박경리와 오정희와 같은 이름을 꾸준히 호출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20년간의 박사학위논문 데이터와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소설연구』의 31년이 식민지 시기 작가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민족문학사연구』나 『상허

27) 이태준은 1988년, 곧 해금 직후 전집이 출간된 매우 이해적인 사례의 작가라 할 수 있다. 「월북작가 작품집 출간 잇달아」, 『경향신문』, 1988.4.21., 9면.)

28) 2000년대 문학사에 대한 재인식과 개신 작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들 수 있다. 토지문화재단 염음,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한길사, 2001.; 민족문학사연구소 염음, 『새민족문학사강좌』 2권, 2009, 창비.

29) 이광수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은 김지윤, 「2000년 이후 이광수 연구의 흐름에 대한 계량적 분석」, 『춘원연구학보』 29, 춘원연구학회, 2024, 111~153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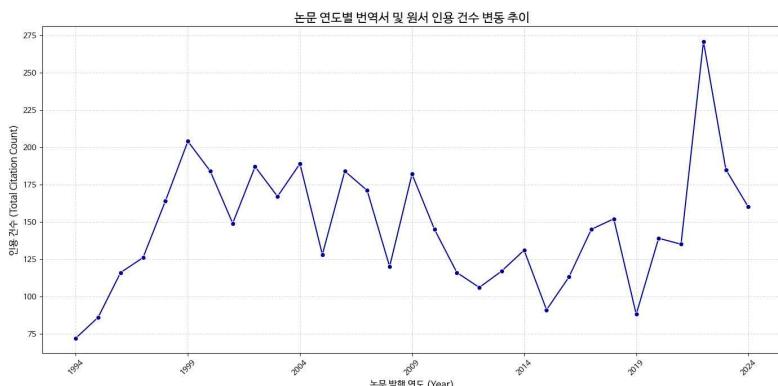
30) 하재연, 「식민지 문학 연구의 역사주의적 전환과 전망」,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11~51면.

31) 최진석 · 최새희 · 김병준 · 허예슬 · 최주찬 · 황호덕, 「두 박완서, 제도와 젠더 혹은 디지털 작가 연구의 시좌-2010년대의 『여성문학연구』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3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4, 131~175면. 참조.

학보』의 20년간이 비교적 식민지 작가에 치중된 편이라는 분석<sup>32)</sup>과 비교해보자면, 『현대소설연구』는 보다 식민과 해방이라는 시대적 구분에 자유로웠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작가를 놓고 볼 때, 작가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시대순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대소설연구』가 구축했던 작가연구는 식민지에서 해방, 1970~80년대로 순차적 단계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 4. 연구자의 서재, 참고문헌(번역서·외서)으로 본 『현대소설연구』

##### 번역서 및 원서 인용 총량의 시계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번역서 및 원서의 인용량은 매번 변동적이다.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 번역서 및 원서가 한국 현대소설 연구의 중요한 자양분이었다는 사실임은 분명하다.<sup>33)</sup> 번역서, 원서를 단 한 건이라도 인용하고

32) 황호덕, 앞의 논문, 97면.

있는 논문은 1,487편 중 1,066편, 약 70%에 달한다. “이론의 힘은 ‘자연스러운 질서’로 간주된 것에 질문을 제기하는 능력에 있다”<sup>34)</sup>고 했을 때, 현대소설연구가 제기하고자 했던 물음은 어떻게 달라져왔는지, 이 장에서는 번역서 혹은 원서의 저자와 저서의 인용 빈도를 수치화하여 그 변동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sup>35)</sup>

### 누가 인용되는가?

〈표 7〉 1990년대 저자 피인용량 top 10 (1994-1999)

저자명	제어번호	인용량
미하일 바흐찐	KAC199601442	39
츠베탕 토도로프	KAC199627650	23
리몬 케넌	KAC199701058	20
시모어 채트먼	KAC201883493	16
제라르 주네트	KAC199602995	15
웨인 부쓰	KAC2018J4862	14
제럴드 프린스	KAC199626293	11
프란츠 카를 슈坦첼	KAC201886062	11
마이클 J. 툴란	KAC200606629	7
프레드릭 제임슨	KAC199613727	7

〈표 8〉 2000년대 저자 피인용량 top 10 (2000-2009)

저자명	제어번호	인용량
지그문트 프로이트	KAC199609326	63
제라르 주네트	KAC2018J4862	22
시모어 채트먼	KAC201883493	20
테오도어 아도르노	KAC199600199	19
질 들플로즈	KAC199606860	18
츠베탕 토도로프	KAC199627650	18

33) 황호덕, 앞의 논문, 98~103면.

34)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여/성 이론가들』, 여이연, 2025, 767면.

35) 전술했듯 KCI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참고문헌 정보가 2024년까지인 관계로, 4장에서는 『현대소설연구』의 1994년부터 2024년(제1호-제96호)까지의 30년 간 참고문헌 정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리몬 캐넌	KAC199701058	18
미하일 바흐찐	KAC199601442	17
프레드릭 제임슨	KAC199613727	16
아놀드 하우저	KAC199611801	14

〈표 9〉 2010년대 저자 피인용량 top10 (2010-2019)

저자명	제어번호	인용량
지그문트 프로이트	KAC199609326	44
이-푸 투안	KAC201116342	24
에드워드 렐프	KAC201884550	16
프랑코 모레티	KAC201418412	14
리몬 캐넌	KAC199701058	12
질 들판즈	KAC199606860	12
하티노 세츠코	KAC200803860	11
시모어 채트먼	KAC201883493	11
웨인 부쓰	KAC199602995	11
미르치아 엘리아데	KAC199608008	11

〈표 10〉 2020년대 저자 피인용량 top10 (2020-2024)

저자명	제어번호	인용량
지그문트 프로이트	KAC199609326	22
오에 겐자부로	KAC199631288	16
주디스 버틀러	KAC199604081	14
이-푸 투안	KAC201116342	12
피에르 부르디외	KAC200001177	9
미셸 푸코	KAC199609116	8
미시마 유키오	KAC199631553	8
프레드릭 제임슨	KAC199613727	8
칼 마르크스	KAC199617910	8
보부아르, 시몬 드	KAC199601967	7

위의 표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로 구분하여 저자의 인용 통계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문예학에서 정신분석학, 보다 정치적인 이론으로 옮아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 상위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개별적 이론가 중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이다.<sup>36)</sup>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는 것은 프로이트 전집의 출간과 완간의 직접적 영향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후반 프로이트 전집의 출간 시작(1996년)과 전 20권의 완간(1998년)<sup>37)</sup> 정신분석 이론과 프로이트 저작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지식·출판계에서도 프로이트 붐은 일종의 ‘현상’으로 포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sup>38)</sup> 문학장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sup>39)</sup>

그런데 앞서 살펴본 제3장에서도 실제 논문 제목이나 키워드에서 ‘정신 분석’이 주류를 차지했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과 나란히 두고 볼 때 이러한 통계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sup>40)</sup> 앞서 논문 제목 분석에서 살펴봤듯, 1990년대 아래로 꾸준히 이어진 섹슈얼리티나 젠더 연구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대소설연구』에서 나타나는 프로이트의 인용 양상은 하나의 독립된 이론 유행을 넘어, 젠더·섹슈얼리티 연구의 확산 과정 속에서 자리 잡아갔던 이론적 자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sup>41)</sup>

36) 이는 비단 한국 현대소설 연구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다. 한국 영미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1990년대 이래로 라캉과 프로이트를 위시로 한 정신분석학 이론(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김용수, 「한국 영문학 비평 이론의 지형도 2: 『비평과 이론』(1996-2020)의 인용 및 의미 연결망」, 『비평과 이론』 28.2, 한국비평이론학회, 2023, 77~113면.) 다만 영미문학 연구와는 다르게 라캉이 선택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숙고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37) 「정신분석」 용어 탄생 100주년 프로이트 전집 20권 기획 출판, 『경향신문』, 1996.10.5., 13 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다시 본다-열린책들 전집 출간」, 『한겨레』, 1998.1.6., 15면.

38) 「다시 부는 「프로이트」 바람」, 『조선일보』, 1996.4.5., 25면.

39) 「프로이트-옹-라캉 등 전집-연구서 봇물, 정신분석학 ‘新르네상스」」, 『조선일보』, 1995.8.18., 21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국내 문학 평단(評壇) 지각 변동」, 『조선일보』, 1996.10.15., 31면.

40) 『상허학보』와 『민족문학사연구』의 1990년대, 2000년대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황호덕, 앞의 논문, 89면.; 이재연·한남기, 앞의 논문, 29~32면.)

41) 물론 이는 토의 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실제 인용 양상을 살펴볼 여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다만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평계의 관심은 비슷한 시기 『여성문학연구』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실제 2010~2019년의 학술지 『여성문학연구』의 현대문학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점은 ‘페미니즘 이론가’가 상위 피인용 참고문헌 저자로 들어오게 되는 시점이다. 그래프에서 확인되듯, 2020년대 들어 와서야 시몬 드 보부아르, 주디스 버틀러가 상위 피인용 참고문헌 저자로 부상한다. 이는 페미니즘 리부트의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른 여성문학의 역사화, 계보화 작업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며, 90년대 발표 및 출판된 여성소설, 여성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한편에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제3장에서 TF-I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관심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꾸준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90년대부터 여성문학의 저류, 전통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론가와 책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이론을 번역서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42)</sup> 즉 『현대소설연구』는 과편화된 형태로 페미니즘 이론가의 언어를 빌려와서 설명을 시도하던 흐름이 조금씩 모아지면서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하나의 단단한 지식 체계가 구축되는 흐름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3)</sup>

---

용된 이론가들 중 한명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였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여성문학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외국 이론 인용 통계치를 제출한 바 있는데, 여기서 총 230편의 논문 중 프로이트를 인용한 논문은 19편이며 주디스 버틀러(27편), 우에노 치즈코(23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자은,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7면.)

42) 오자은 역시 여성문학연구의 외국 문헌 수용 양상을 분석하면서, “비교적 최근 번역서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오자은, 위의 논문, 38면)

43) 이어서 분석할 저서의 피인용 빈도의 경향 역시 일종의 낙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봤듯, 여성, 페미니즘, 젠더 등의 주제는 근 30년간 현대소설 연구의 주요 화두였음에 분명했으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번역서나 외서의 상위 인용 빈도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 어떤 책이 인용되는가?

〈표 11〉 1990년대 저서 피인용량  
top10 (1994-1999)

저서명	인용량
소설의 시학	17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10
서사답론	10
도스또예프스키의 시학	10
바흐찐	9
소설의 수사학	8
서사학	7
현대소설의 이론	6
현대소설론	6
산문의 시학	6

〈표 12〉 2000년대 저서 피인용량  
top10 (2000-2009)

저서명	인용량
서사답론	17
소설의 시학	15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14
현대소설의 이론	13
에로티즘	11
The Political Unconscious	9
소설의 수사학	8
문명 속의 불만	8
공간과 장소	7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7

〈표 13〉 2010년대 저서 피인용량  
top10 (2010-2019)

저서명	인용량
공간과 장소	24
장소와 장소상실	15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8
소설의 수사학	8
소설의 시학	7
서사답론	7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6
무정을 읽는다	6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6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6

〈표 14〉 2020년대 저서 피인용량  
top10 (2020-2024)

저서명	인용량
공간과 장소	9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8
장소와 장소상실	5
구별짓기	4
서사답론	4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4
정동 이론	4
프로이트 전집	4
제2의 성	3
大正生命主義と現代	3

저서의 인용 양상은 1990-2000년대와 2010-2020년대의 두 흐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저서의 순위는 상당히 유사하다. 가장 많은 외래문헌의 변동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시기는 미적 근대성, 근대성 연구, 탈식민주의 등등 문학 외적 방법론에 대한 동원

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되었던 시기였던 한편으로 여전히 문예학, 서사학과 관련된 외래문학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현대소설연구』의 지향이 어디에 가닿아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시일 수 있다.

초창기 『현대소설연구』는 구조주의·서사학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인용량 상위권을 차지한 『소설의 시학』, 『서사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소설의 수사학』은 모두 텍스트 구조 분석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서사학 계열의 핵심 저서들이다. 이는 1990년대 연구가 텍스트 내부의 구조, 시점, 내리티브 장치 등 서사적 메커니즘 분석에 집중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1990년대 이후 한국문학 연구에서 리얼리즘 이론 수용 확대 양상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특히 이론의 수용 문제는 1990년대 국문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와도 같은 문제였으리라.<sup>45)</sup> 그러나 오히려 위와 같은 통계로 보자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현대소설연구』의 이론적 지향은, 서사학, 문예학이라는 범주를 공고화함으로써, 소설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 데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론가 수용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바흐친’이라는 예외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다른 학술지에서 주목했던 이론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호덕의 연구에 따르면 미하칠 바흐친은 『민족문학사 연구』의 1990년대에서만 빈번히 인용되는 이론가였을 뿐, 다른 시기, 다

44) 이철호, 「해금 이후 90년대 학술장의 변동」,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2018, 9~37면. 참조.

45) “그다지 길지 않은 우리 근대문예비평사에는 수많은 문학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외국이론의 모방과 수입으로만 등장하였다가 사라져간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명멸 속에서도 일관하는 우리 문학이론의 발전과정을 탐색해내어야 할 것이며, 이 작업에서 바로 이들에 대한 올바른 논리적인 평가는 그 첫걸음이 된다. / 이론적 깊이를 갖추는데 있어서는 우선 외국의 선진적 이론의 수용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승엽, 「비평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하여」, 『민족문학사연구』 1, 민족문학사연구소, 1991, 120면.)

른 학술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목된 이론가는 아니었다.<sup>46)</sup> 바흐친 수용에 대한 맥락을 좀 더 살펴야겠지만, 『현대소설연구』가 바흐친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며, 그의 이론과 한국 현대소설과의 연결점을 강하게 만들어냈다고 보인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상위 인용 저서 목록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된다. 서사학 관련 저서는 여전히 인용되지만, 그 위로 정치·이데올로기·욕망 이론을 다루는 저서들이 새롭게 부상한다. 대표적으로 『The Political Unconscious』(프레드릭 제임슨), 『문명 속의 불만』(프로이트), 『에로티즘』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러한 변화는 학술지의 전반적인 관심이 텍스트 내부 구조 분석을 넘어, 사회·역사·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해석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2010년대는 가장 뚜렷한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이후 트위안의 『공간과 장소』(24회)와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와 장소상실』(15회)이 압도적인 인용량으로 1, 2위를 차지한다. 이는 201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문학 연구를 휩쓴 ‘공간적 전회’가 『현대소설연구』에서도 매우 강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문학 텍스트가 더 이상 단편 구조나 이데올로기적 기호 체계가 아니라, 공간적 체험이 축적된 장소성의 장(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020년대 인용 상위권에는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구별짓기』, 『정동 이론』 등이 포함된다. 정신분석학 저서는 여전히 중요한 이론 자원으로 기능하지만,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와 정동이론 관련 저서가 새롭게 가세하며 연구 경향이 또 한 번의 변동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2020년대 문학연구가 감정·정동, 감각·신체성, 계급·취향·문화자본, 사회 구조와 개인의 위치성 등을 중심 주제로 삼는 방향

46) 황호덕, 앞의 논문, 74~76면.

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텍스트 분석의 초점을 다시 인간 경험의 충위로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최근 한국문학 연구의 정동적 전환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현대소설연구』 제1호부터 제99호까지 게재된 1,48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제목, 초록 및 키워드, 외래 참고문헌 데이터 일체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이 작업은 지난 31년 간 『현대소설연구』가 매개하고, 또 재생산해낸 지식의 총체를 묻는 일이었다. 이른바 ‘소설의 시대’를 지나온 학술장의 풍경을 부감하는 것.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거대한 해석의 지층 속에서 담론적 간선과 이론적 분기의 계기를 찾아내고자 했다.

일차적으로 수행한 제목·초록·키워드 고빈도 어휘 분석에선 단순 명사 출현 빈도와 TF-IDF 지표를 교차·대조했다. 이에 창간연도인 1994년부터 10년 단위로 시기를 분절하여 검토한 결과, 각 분석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1기(1994-2003년)에선 ‘한국현대문학’이라는 학술적 의제의 정초가, 2기(2004-2013년)에 들어선 연구의 양적 확대와 문제의식의 심화가 동시에 포착되었다. 3기(2014-2023년) 지표에서 특기할 것은 『현대소설연구』가 젠더 연구의 토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일 터이다. 이미 내장된 경험치를 활성화한 동력은 이 시기를 전후한 폐미니즘 리부트였다.

제목 빈출 작가 분석은 『현대소설연구』가 특정 연대 내지 정전과의 종속 관계에서 일정하게 자유로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상허학보』와 『민족문학사연구』와 비교할 때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뿌리깊은 인식틀인 식민/해방이라는 시대 구분이 선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일군의 작가들이 특정 의제에 따라 호출되었을 따름이다. 다만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해명하

지 못한 것은 김유정의 잇따른 등장이다. 즉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상위 빈출 작가 목록에 빠지지 않고 기재되어있는 김유정은 『현대소설연구』의 어떠한 단층인가?<sup>47)</sup> 이 논문은 비교적 최상위 빈출 작가만을 집중적으로 읽었기에 그에 대한 분석을 유보했다. 하여 이를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외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 본 참고문헌 분석은 『현대소설연구』가 어떠한 외부와 접속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피인용량을 기준으로 저자와 저서를 분리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 몇 가지 주목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된다. 먼저 프로이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가 젠더·섹슈얼리티 담론의 이론적 지렛대로 활용된 바, 페미니즘 연구 체계화의 정후였음이 파악된다. 1990년대에 주로 인용된 구조주의·서사학 논저들은 당시 『현대 소설연구』와 여타 학술지와의 거리를 실감케 한다. 또한 2010년대에 들어 발견되는 이푸 투안과 에드워드 렐프의 비약 역시 눈에 띈다. 다만 미셸 푸코의 다소 지연된 등장은 여전히 해명의 대상이다. 푸코는 어째서 2020년대에서야 인용되었는가? 이 지점 또한 향후의 작업을 기약한다.

계량적 독해를 통해 재구성한 『현대소설연구』의 학술사는 이러하다. 이 학술지가 자신의 영토를 단단히 구축해나가며 새로운 문제제기에 부지런히 응답하는 과정은 곧 한국 현대소설 연구의 한 경로이기도 했으며 학술계의 외래 이론 수입 현장에 다름 아니었다. 결국 『현대소설연구』의 100호를 앞에 둔 현재, 우리가 던진 ‘백 번째 물음’은 단순한 회고와 전망만을 넘어서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의 질문이 어떻게 축적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극복해왔는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희미하게나마 전

<sup>47)</sup> 예컨대 『현대소설연구』에 게재되어왔던 김유정론의 흐름은 각 시기별 이론의 변동 추이와 동궤를 이룬다. 최근 발표된 주요 논문으로는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를 아우르는 김유정의 정전화 과정을 해학적 전통이라는 코드로 분석한 이만영, 「김유정과 문학사: 1930~60년대 김유정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5,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445~471면.

체의 윤곽을 그려보았으나 여전히 미결의 문제들이 쌓여있다. 따라서 우리의 ‘백 번째 물음’은 하나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질문이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기본 자료

『현대소설연구』 1~99호

## 2. 국내 논문 및 단행본

- 김병준·천정환, 「박사학위 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443~517면.
- 김용수, 「한국 영문학 비평 이론의 지형도 2: 『비평과 이론』(1996-2020)의 인용 및 의미 연결망」, 『비평과 이론』 28-2, 한국비평이론학회, 2023, 77~113면.
- 김지아·김재원·유시어도어준, 「문학 및 작가 연구와 DB의 활용- 김수영 DB ‘별길’의 데이터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24,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43~78면.
- 김지윤, 「2000년 이후 이광수 연구의 흐름에 대한 계량적 분석」, 『춘원연구학보』 29, 춘원연구학회, 2024, 111~153면.
- 노상래, 「1990년대 현대소설 연구 동향과 전망」, 『현대소설연구』 12, 현대소설학회, 2000, 363~382면.
- 손유경, 「최근 프로문학 연구의 전개 양상과 그 전망」,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279~308면.
- 심진경, 「여성문학의 탄생, 그 원초적 장면」, 오혜진 엮음,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 오자은,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0~59면.
- 유석환, 「한국문학 및 독서문화사 연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상허학보』 69, 상허학회, 2023, 79~128면.
- 이만영, 「김유정과 문학사: 1930~60년대 김유정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5,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445~471면.
- 이재연·한남기, 「논문 제목과 주제어의 공기어 네트워크로 본 『상허학보』의 30년」,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11~56면.
- 이철호, 「해금 이후 90년대 학술장의 변동」,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2018, 9~37면.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엮음, 『여/성 이론가들』, 여이연, 2025.

- 최진석 · 김병준 · 허예슬 · 최주찬 · 황호덕, 「김윤식과 우리 시대, 인용의 인구사회학적 시좌- 현대문학연구자의 성별 및 세대별 김윤식 저술 인용 양상 연구 (2004-2019)」, 『국제어문』 96, 국제어문학회, 2023, 305~346면.
- 최진석 · 최새희 · 김병준 · 허예슬 · 최주찬 · 황호덕, 「두 박완서, 제도와 젠더 혹은 디지털 작가 연구의 시좌-2010년대의 『여성문학연구』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3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4, 131~175면.
- 프랑코 모레티, 이재연 옮김, 『그래프, 지도, 나무』, 문학동네, 2020.
- 하재연, 「식민지 문학 연구의 역사주의적 전환과 전망」,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11~51면.
- 허예슬 · 김병준 · 최주찬 · 최진석, 「푸코의 초상: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의 푸코 인용 양상 변화: 2008-2021 KCI 등재 학술지 논문 참고문헌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46, 한국이론사회학회, 2023, 305~342면.
- 황호덕,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와 이론, 예비적 고찰 혹은 그래프 · 지도 · 수형도」,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53~115면.

<Abstract>

The Era of the Novel, 31 Years On  
–Facing the 100th Question — Data-Driven Reading of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Vol. 1–99)

Choi, Joochan · Kim, Byungjun ·  
Kim, Gyeongmin · Huh, Yesel

This study analyzes all 1,487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over the thirty-one years since its inauguration in 1994 (Vols. 1–99). Drawing on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refined data from article titles, subtitles, and bibliographic references, the study employs digital humanities methodologies to examine both the macro- and micro-level configurations of knowledge that the journal has constructed, as well a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s of its research landscape. The dataset was built by integrating bibliographic and reference information from 1994 to 2025 through KCI and manual input, and by standardizing cited authors' names usi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Linked Open Data (LOD).

Using Python-based text mining, noun-frequency analysis, TF-IDF, and time-series citation analysis of translated and original monographs, this study identifies clear shifts in the journal's research orientations. In the 1990s, the journal concentrated on establishing foundational concepts for modern Korean literary history. In the 2000s, theoretical vocabularies such as 'Modernity', 'Women' and 'Space' became prominent, signaling an expansion of theoretical engagement. Since the 2010s, keywords including 'Women', 'Subjectivity', 'Liberation', 'War' and 'Desire' have

emerged as central concerns, marking a distinct transformation in the critical landscape. In the 2020s, intensified gender-focused scholarship has been accompanied by new forms of sensorial, generational, and global awareness, indicating a paradigmatic shift within the field.

An analysis of authors appearing in article titles further reveals how the journal has reconfigured literary history around different writers at different moments. While colonial-period writers such as Lee Taejun, Hwang Sunwon, and Chae Mansik dominated early research, studies on contemporary women writers—including Park Wanseo—expanded significantly in the 2010s.

Finally, the citation analysis of translated and original theoretical works demonstrates how research in modern Korean fiction has interacted with external intellectual frameworks. Whereas narratological and literary-theoretical figures (Bakhtin, Genette, Kermode, Chatman) were most frequently cited in the 1990s and 2000s, the 2000s also saw a marked rise in psychoanalytic theory and spatial studies (Freud, Yi-Fu Tuan, Edward Relph). In the 2020s, Judith Butler, Simone de Beauvoir, and other feminist theorists became highly cited, reflecting a broader epistemic realignment within the scholarly field.

Key words: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Digital Humanities, Quantitative Analysis, Article Titles, Bibliographic Analysis

투 고 일: 2025년 11월 14일

심 사 일: 2025년 12월 17일

제작일: 2025년 12월 22일

수정마감일: 2025년 12월 28일